

위드 코로나 때 광주·전남 카드 소비액 역대 최고

11월 1인당 월 평균 카드 사용액 광주 177만원·전남 147만원 지난해 1~11월 광주·전남 총 사용액 40조 돌파...전년비 8%↑ 코리아페스타에 전국 백화점 매출 18%↑...대형마트는 10%↓

집합 인원수와 영업시간 제한이 대폭 풀렸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됐던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은 1인당 5만원 안팎을 더 카드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한 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총 카드 소비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6일 통계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인당 평균 카드사용금액은 광주 177만원·전남 1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일상 회복을 시행하기 직전 달에 비해 광주는 2.3%(4만원), 전남은 4.3%(6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17개 시도 모두 일상 회복을 시작한 11월 평균 카드지출이 전월보다 증가했다.

전남의 평균 카드지출 증가율은 세종(5.3%), 제주(5.2%), 대구(4.7%), 서울(4.4%) 이어 5번째로 높았다. 11월 기준 1인당 카드 소비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218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경북(14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총 카드사용금액은 40조3000억원으로, 최근 3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전남 카드지출은 2019년 36조1000억원, 2020년 37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1월 광주 카드지출은 2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9조4000억원)에 비해 8.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남은 전년 1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3000억원으로, 8.4%(1조

5000억원) 늘었다. 카드 총 사용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시 카드지출은 4조5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20%(9000억원) 급증했다.

이어 경기(11.3%)와 경북(10.7%), 강원(9.6%), 대전(9.3%), 대구(9.1%), 충북(9.0%) 순으로 높았다.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4.7%)였다. 광주와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와 8번째로 증가율이 낮았다.

지난해 11월 카드 소비가 최고를 기록한 건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 행사의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지난해 11월보다 9.6%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4.6%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은 14.8%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판매처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외식 수요 증가, 온라인 구

매 비중 확대, 점포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출이 각각 10.3%, 6.3%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점포 수는 대형마트가 394개에서 384개로, SSM은 1139개에서 1109개로 줄었다.

반면 백화점 매출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 행사와 방문객 증가 효과로 18.3% 증가했다. 아동·스포츠(25.7%), 여성정장(15.0%), 남성의류(14.9%), 해외유명브랜드(32.9%) 등을 포함한 전 품종의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다.

편의점도 소량제품 판매 증가와 점포 수 증가(3만 9904개→4만2192개)에 힘입어 거의 모든 상품군의 매출이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6.7% 늘었다.

온라인 매출은 음식품류·식품의 온라인 구매 보편화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쇼핑 행사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성장했다.

식품(19.9%), 화장품(19.0%), 가전·전자(14.6%), 패션의류(6.3%), 서비스·기타(36.4%) 등 거의 전 상품군의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용보증재단 5050억 보증 공급 계획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505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등 5390억원의 대출보증을 공급했다.

광주신보는 이날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올해 광주신보는 폐업한 기업을 위한 '브릿지 특례보증', 비대면 보증 플랫폼 '온택트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한다"며 "광주신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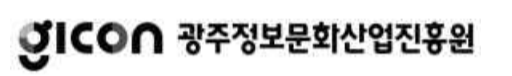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1기 해단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11기 대학생 홍보대사 30여명과 7개월 장정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천 푸른산책길 만들기과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등 총 35차례에 걸친 사회공헌·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정보문화진흥원 "이젠 지콘이라 불러주세요"

혁신과 성장 담은 새 CI 공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새로운 상징(CI)이 될 명칭 지콘(GICON)을 지난 5일 공개했다.

그동안 진흥원의 한글 이름은 11자에 달하고 약칭 'GITCT'는 발음하기 어려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흥원은 지난해 하반기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새 이름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였다.

새 CI 지콘은 지역의 콘텐츠·ICT 기업육성기관으로서 친화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기관을 내걸었다. 또 '혁신과 성장' 의지를 담은 다양한 색상을 썼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02년 6월 예산 44억원으로 출범, 현재 635억원 예산으로 성장하고 있다. 20년에 걸쳐 전문인력 양성, 제작 인프라 조성,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발굴,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진흥원을 '지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확충·고시했다. 진흥원은 ICT·소프트웨어(SW)분야에서 광주시 지역산업 진흥 중심기관 역할을 펼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일골

"지역 밀착형 금융교육 활성화 힘쓸 것"

김태성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



"지역민들이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익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밀착형 금융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에 최근 부임한 김태성(54·사진) 지원장은 6일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지원장은 "금융상품이 점점 복잡해지고 판매 채널도 디지털화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강화 등 지역민들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금융

용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지역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태생인 김 지원장은 전일고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금융감독원 통합 이후 인적자원개발실 실장, 기업공시국 국장 등을 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전력공급 여유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전력수요 자발적인 분산 유도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부터 지역별 전력공급 여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83개 345kV 변전소에 대한 전력공급 여유량과 지역별 여유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17개 시도와 각 시·군·구 별로 여유 정도에 따라 색깔 구분을 달리 한 것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전국 및 지역별 여유정보를 파악하는 '전력공급 여유지도', 주소 검색기능을 갖춘 '전력소 공급 여유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해 문의하면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들이 투자계획 단계에서 전력공급 여건과 최적의 입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은 '계통섬'인데다 전력수요와 발전설비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있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전력

망 보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향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수도권에 추가로 입지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전은 전력사용 예정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전력공급 여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력수요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관리해 정확하고 투명한 전력공급 여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